



BURBERRY

Style **조선일보**

MARCH 2018
vol.169

MONTBLANC



Montblanc 4810 Chronograph Automatic
Montblanc Bohème Day & Night

GUCCI

Scan with the Gucci App
to see a #GucciHallucination

gucci.com





MICHAEL KORS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MICHAELKORS.COM

FENDI



40



14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몽블랑의 남녀 대표 워치 컬렉션이다. 왼쪽에 놓인 남성용 워치, 4810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워치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스테디셀러다. 오른쪽에 놓인 여성용 워치, 보렘 데이 & 나잇 컬렉션은 스틸 소재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여성스럽다. 블루 얼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더욱 화려하다. 문의 1670-4810



22



10

- 14 **문화 예술 열기로 달아오르는 홍콩의 봄** 해마다 3월이면 홍콩에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장터로 자리매김한 아트 바젤 홍콩을 비롯해 해 강매,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줄지어 열린다.
- 16 **ATIME FOR US**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어줄, 각자의 개성이 묻어내는 완벽한 한 쌍의 패어 워치를 제안한다.
- 18 **ROMANTIC WHISPER**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좋은, 로맨틱한 모티브를 표현한 주얼리.
- 20 **DREAM BAGS** 새로운 봄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잇백 갤러리.
- 22 **NEW YOU** 미니멀과 맥시멈, 여성스러움과 중성적인 매력, 이방가 르드와 스트리트 패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뉴 킷.
- 30 **CRADLE OF FINE WATCHMAKING** 가장 오래된 워치 브랜드 블랑팡(Blancpain). 고사하지 않는 디자인의 블랑팡 워치를 착용하 는 것만으로도 시계의 진정한 품격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 32 **FRESH TRENCH** (스타일 조선일보)에서 엄선한, 브랜드의 DNA 와 개성을 담은 여성 트렌치코트 신제품.
- 33 **A GREAT DAY OF AMERICAN STYLE** 아메리칸 스타일을 대표 하는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의 특별한 행사가 지난 1월 이탈리아 피 렌체에서 개최되었다.
- 34 **BIG CREATION** 창립 1백 주년을 맞은 미도가 하이엔드 브랜드의 국제적인 허브로 자리매김한 상하이에서 대형 이벤트를 개최했다.
- 35 **FOR MY LOVE** 다가오는 화이트데이에 잊지 못할 로맨틱한 순간을 선사해줄, 스와로브스키의 특별한 기프트 제안.
- 36 **TIMELESS LUXE** 하이엔드 뷰티 아이템이 전하는, 말이 필요 없는 특별한 품격.
- 37 **PROTECT FROM POLLUTION** 사형에서는 매일 입고 빠르게 피 부를 보호해주는 미스트를 출시해, 도시 여성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 한다. 토털 안티폴루션이자 간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솔루션 D- 폴루션 에센스샴푸가 그 주인공이다.
- 38 **SCIENCE OF LUMINOUS SKIN**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낸 정교 한 빛의 과학, 그 정수를 담은 라프라리의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 라오드네어와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필 인퓨전.
- 39 **STYLISH DUO** 올봄 새롭게 선보이는 프라다의 향수 듀오 라팜프 프라다 로와 브롬프 프라다 로는 동시대의 트렌디한 감성과 아이코 니한 전통을 조화롭게 담아낸 최상의 결과물이다.
- 40 **LIKE NO OTHER PLACE** (동방건문록)을 남긴 마르코 폴로부터 티치아노, 비탈디의 고향이자 최대의 업적지인 나뮴 튀어날 지성이 기도 했던 카사노바의 주 무대였던 베니스, 세상 어느 도시와도 다른,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 수상 도시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아드리아 해의 여왕이라 불리던 해상 제국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관광 도시로서 여전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 42 **EDITOR'S PICK**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며 (스타일 조선일 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뷰티 리스트.

Style 조선일보

Issue.169 March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정고 · 미케일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화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Jewel
A DROP OF MAGIC

얼굴 라인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드롭 이어링 컬렉션.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의 해성을 표현한 코넷 플라스 다이아몬드 이어링 4백70만원대 **타파기**, 플라세에 라운드 보빌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재즈 드롭 이어링 6백만원대, 옐로 골드 소파의 강렬한 디자인이 멋진 티파니 하트웨이 트 리플 드롭 이어링 3백만원대 모두 **타파기**,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포인트처럼 세팅한 디자인 레제 드 카르띠에 이어링 5백만원 대, 블루 컬러 라이스 라줄리아아름다운 아말라드 드 카르띠에 이어링 9백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에디터 **베리안**

Hot Spot
CABINET OF CURIOSITIES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영입한 이후 부활한 꾸뛰는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열광하고,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은 아이템이 넘쳐나는, 지금 가장 핫한 럭셔리 패션 하우스라 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트렌드 키워드로 너드(nerd) 팬타지의 강세가 이어지며, 너드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미켈레는 최근 몇 시즌째 그안이 표현할 수 있는 신선한 상상력과 도발적인 꾸뛰로 기교를 통해 특유의 환상적인 컬렉션을 이끌고 있기 때문. 그리고 이제는 한국, 청담동에 서도 그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꾸뛰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 25일,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로운 콘셉트로 리뉴얼 오픈한 것 꾸뛰의 상징적인 매혹적인 골드빛 피사드 건물 안에 들어서면, 1층부터 3층까지 남성 및 여성 의류, 핸드백, 라지지, 가죽 소품, 슈즈, 주얼리, 시계, 시크, 벨트, 아이웨어, 액세서리와 함께 한국에서 첫선을 보이는 꾸뛰 홈 데코 컬렉션까지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리뉴얼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미켈레가 사랑하는 수공예적 열정을 담은 꾸뛰 DIY(Do It Yourself)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 197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인 브리시티 펌프에서 영감을 받아, 고객들이 손쉽게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어 보안을 미울 것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오나시스 백 위에, 또는 남성 보머 재킷과 셔츠 등에 원하는 자수 패턴과 이니셜 패턴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아이템을 디자인할 수 있다. 또 한국을 상징하는 호랑이 자수를 놓은 꾸뛰 베스트아리(Bestary) 남성 가방, 프린스턴(Princeton) 슈즈, 지갑과 카드 케이스 등 남성을 위한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출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단장한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곳곳에는 대조적인 인오스가 각기 다른 디자인 코드로 적용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꾸뛰만의 문화를 강화하는 즐거움과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든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ies)으로 완성되었다. 꾸뛰만의 놀라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미켈레의 세계로 새 단장한 꾸뛰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를 방문해보자. 문의 1577-1921 에디터 **이재민**



INSIGHT

편안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스타일.

Focus
평창에서 우주를 담아내다, 현대자동차 파빌리온

올림픽은 누구보다도 스포츠를 위해 땅 출려온 선수들의 무대지만, 다른 여러 면에서도 경연장 역할을 해왔다. 이를테면 기업의 내용을 세계인을 향해 뽐낼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된다. 기업 홍보관이 모여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플라자는 그런 면에서 꽤 괜찮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중 미래의 핵심 비전인 '수소전기차'를 테마로 삼고 우주의 75%를 차지하는 수소 에너지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 반영했다는 현대자동차 파빌리온은 예술과 기술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 아닐까 싶다. 일단 반짝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 같은 느낌의 피사드부터 절로 눈길을 끈다. 수소의 기원인 우주를 창조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검은 물질이자 빛을 99% 흡수하는 신소재를 사용했고, 별을 표현하기 위해 1천9백46개의 LED 로드를 사용했다. 실내 전시 공간으로 들어서면 시트 외관과 대비되는 백색의 공간 워터(Water)관이 펼쳐진다. 2,215천 개의 물방울이 특수 코팅한 대리석 수로를 따라 흘러내려 호수를 형성했다 사라지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미래 사회의 시간인 수소의 여정을 보여준다. 마자 하이(하이드로젠-hydrogen)관에서는 수소의 추출부터 수소 전기차의 구동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설치물 작품처럼 만든 건축 면적 1,225㎡(약 3백70평), 높이 10m 규모의 현대자동차 파빌리온은 혁신적인 감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영국 건축가 아사프 칸(Asif Khan)과 현대자동차 크리에이티브 팀이 수공예적 디자인을 맡았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3월 9~18일) 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https://lightyouenergy.co.kr>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댄 플라빈, 위대한 빛(Dan Flavin, Light: 1963-1974)>

관조적인 무의 추구, 순수한 형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일 아트는 1960년대부터 1970년 전반기까지 최성기였지만, 지금까지도 그 미학적, 철학적, 오리의 영향력은 크다. 산업 소재인 형광등을 예술로 끌어들이는 미니멀리즘의 가장 중 한 명인 댄 플라빈(1933~1996)의 전시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미술 애호가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에 들어서면 1백23층짜리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7층에 자리 잡은 롯데뮤지엄의 개관점으로 선택된 댄 플라빈 전시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작가의 예술적 궤적을 보여주는 초기 작품 14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형광등 3백48개로 이루어진 조형물 장벽이 있는 미자관 전시장은 빛의 미학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의 백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난 뉴욕에서 활동하면서 도널드 저드, 로버트 모리스 등과 함께 미니멀리즘 작가로 부상했다. 그는 공간에서 제작된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해 작가의 흔적을 제거해 모놀리딕하고 미학적 우위를 거의 배제한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추구하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조형 언어를 만들어냈다. 그 차별성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형광등을 공간에 설치해 관람자로 하여금 그 공간을 몸소 체험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다. 댄 플라빈은 1963년부터 벽면에 단적으로 2.4m 형광등을 설치하고, 하나의 오브제이자 회화적 효과를 내는 색채로서 형광등의 가능성을 실험했고, 이후 여러 개의 형광등을 반복적으로 배치해 빛에 의해 공간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환영을 빚어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품 제목을 무제로 하더라도 자에게 영감을 준 예술가나 철학자,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관람자에게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해석 과정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홈페이지 www.lottemuseum.com 에디터 **고성연**



Fashion
DOGGY DOG

2018년은 황금 개띠, 무술년이다. 이를 되새기기도 하듯 수많은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는 개띠의 개성을 담은 사랑스러운 강아지 모티프의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했다. 올 한 해 행운을 불러다줄 강아지 모티프의 패션 아이템.

(왼쪽 위에서 왼쪽부터) 익스클루시브 보스틴 테라를 자수한 패퍼워라한 보스코 토트백, 36x37.5cm, 1백88만원 **꾸뛰**, 다리가 긴 귀여운 슈누우 모티프를 담은 인티리아 스퀘어 55만원대 **토티비치**, (왼쪽 아래 이미지 위부터) 긴 허리를 강조한 닥스후트 모티프의 지갑 27만원 **토티비치**, 상징적인 로고 패턴 가죽에 캐주얼한 강아지 매달 장식물 매치한 빈자갑 29만5천원 **MCM**, 패피를 패션을 더한 우아한 무릎 모슬을 담은 정지갑 59만원 **에르메**, (오른쪽 아래 이미지 위부터) 다양한 가죽과 브랜드의 상징인 워딩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도그 침 59만5천원, 블랙 & 화이트에 에르메의 매달로 제작된 보스틴 테라 모티프의 침 46만5천원 모두 **보테가 베네타**, 소량밖에 들어간 사랑스러운 강아지 모티프에서 워 트가 느껴지는 아이폰 케이스 11만원 **모스카노**, 에디터 **권유진**



바이올렛 컬러 바이커 레더 재킷 95만원 **마이클코아스**
 고기능 패들 디테일의 상용한 엘도 컬러 웨이브 미니백 23x20cm, 1백90만원 **토즈**

RV
 플라워 자수와 스트라이프 프린트가 어우러진 캔버스 소재의 클러처. 29x19cm, 가격 미정 **로저버비에**.

로맨틱한 하트 장미 포인트로 들어간 브레이슬릿 1백45만원 **판도라**.

핑크 린크 퍼라트를 안고 있는 토끼 모티프 키링 55만2천원 **MCM**
 부드러운 컬러 그래픽(아이) 특장이나 세 아이링 180만원 **스외로브스키**

꽃을 상징하는 누드 패밀 링크 컬러 레진으로 디자인한 류즈 푸드레 만년필 1백19만원 **몽블랑**.

플리워 인브로이더리 장식의 여성스러운 스커트 1백38만원 **로사스 by 무이**.

for her Selection

올해의 컬러로 선정된 울트라 바이올렛에서 영감을 받은 라벤더 컬러를 필두로, 핑크와 옐로 등 미카롱을 연상시키는 사랑스러운 파스텔컬러로 물들인 스프링 셀렉션. *photographed by kim do hyun*

핑크 컬러 틴트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샤넬**.

샤넬의 핑크 컬러를 연상시키는 핑크 컬러 로제트 스니커즈 49만원, 핑크 컬러 49만원 모두 **클로에**.

50만 원대부터 270만 원대까지 **살비토레 파라카모**
 핑크 컬러 로제트 스니커즈 49만원, 핑크 컬러 49만원 모두 **클로에**.

사랑스러운 캔디 컬러 동전 지갑 옐로 컬러 43만원, 핑크 컬러 49만원 모두 **클로에**.

사각 박스를 연상시키는 미니백, 12x12cm, 4백만원대 **모아나**.

- 마이클 마이클코아스 02-546-6090
- 로저버비에 02-6905-3370
- 살비토레 파라카모 02-3430-7854
- 판도라 1688-5501
- MCM 02-540-1404
- 스외로브스키 1661-9060
- 몽블랑 1670-4810
- 무이 02-3446-8074
- 토즈 02-3438-6008
- 샤넬 02-543-8700
- 본더샵 02-2056-1234
- 클로에 02-6905-3670
- 렌디 02-2056-9023
- 모아나 02-2254-4150
- 애반셀 02-3438-6287
- 로에베 02-6905-3470

샤넬의 핑크 컬러를 연상시키는 핑크 컬러 로제트 스니커즈 49만원, 핑크 컬러 49만원 모두 **클로에**.

플라워 프린트의 안젤리나 필크 셔츠 99만원 **로에베**.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audin



베이스 볼 스타일 장식을 새겨 넣은 1923 베이스볼 플린드백, 45X37cm, 1천원입니다. **에르메스.**



배우와 커피 잔 등 일상생활의 사물을 귀여운 일러스트로 표현한 클라치, 23X15cm, 1백70만원입니다.



송아지 가죽 스니커즈 다크 컬러 스니커즈 700,800원 **자이후.**



스트라이프 코튼 셔츠 69만원, 블루 캐시미어 카디건 1백70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옐로 캔버스 벨트 가격 미정 **토즈.**



파스텔 그라데이션 렌즈가 돋보이는 선글라스 20만원대 **레이펜 by 룩스타가 코리아.**



활동 개만 해인 우슬년을 기념하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인트레시타트 기법으로 완성한 가죽 기림 55만원대 **보태가 배너.**



사랑스러운 깃털 컬러 비니 가격 미정 **몽블랑.**



유쾌한 코인스 그래픽 프린트가 그려진 웨이스트 밴드, 40X16cm, 2백만원대 **프라다.**



체크 패턴의 코튼과 라틴 혼방 셔츠 55만원, 내비 타이 20만원 모두 **에르메스**도 **제너.**



상큼한 레몬 컬러 라운드 니트 67만원 **아크네 스튜디오 by 본다남.**

for him Selection

이번 봄엔 생기 있는 파스텔컬러를 더해보자. 화이트 컬러와 함께 부드러운 톤온톤 룩으로 스타일링하거나, 동일한 계열의 비비드한 컬러를 선택해도 좋을 듯!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카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아이보리 컬러 캐리어 데노보 캐리어, 34X45cm, 69만원 **하트만.**

세일링에 유용한 어시스트 이매지, 2백50 원대 **아자딘**



블루 사피어는 카바가 포인트인 #146 레인보우 노트 7만원대 **몽블랑.**



명품 향수들보다 에르메스 장갑들이 장난감에 수줍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에르메스**의 **미스트라** 향수입니다. **몽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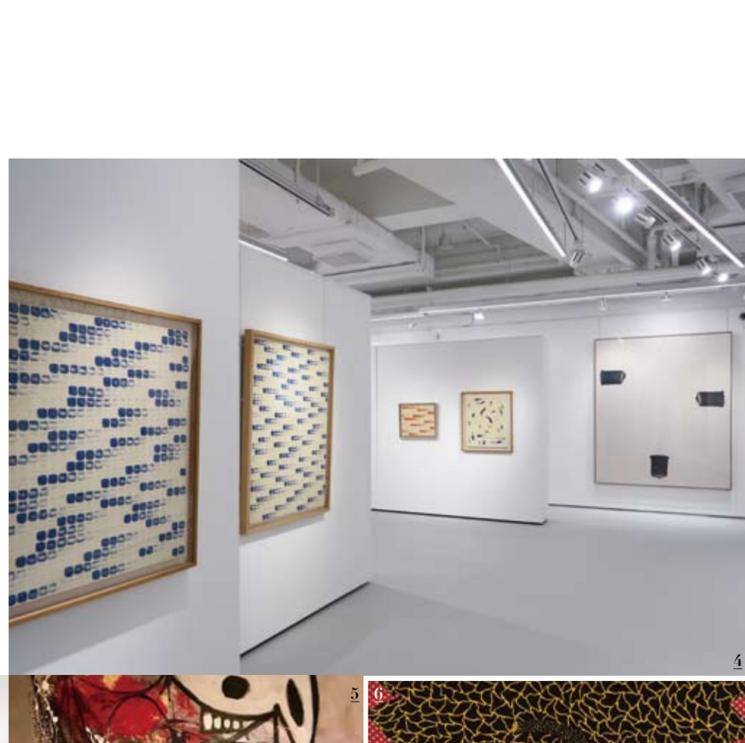
새로운 스타일 감각을 자극하는 스포티한 룩의 옐로 스니커즈 1백70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 렌디 02-2056-9023
- 토즈 02-3438-6008 **지미후** 02-3438-6107 **에르메스** 02-542-6622
-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 몽블랑** 02-514-0900 **룩스타가 코리아** 02-501-4436 **프라다** 02-3218-5331
- 보태가 배너** 02-3438-7601 **에르메스**도 **제너.**
- 제너** 02-3479-6297 **본다남** 02-3444-3300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60
- 몽블랑** 1670-4810 **하트만** 02-3448-5914



CANALI

1934



문화 예술 열기로 달아오르는 홍콩의 봄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도시 중 하나다. 면세 지역인 동시에 온갖 명품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쇼핑 인프라, 미식 도시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의 봄은 문화 예술의 향기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해마다 3월이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장터로 자리매김한 아트 바젤 홍콩을 비롯해 경매,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줄지어 열린다. 금융 허브만이 아니라 현대미술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홍콩에서 펼쳐지는 봄의 축제를 미리 소개한다.



지난 2월 말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강인도 평창의 겨울 스포츠 축제가 대장정을 마쳤다. 그 바통을 이어 동계 패럴림픽이 3월 중순까지 펼쳐지고 나면 아마도 완전한 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는 굳이 스포츠 팬이 아니어도 못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을 가졌지만, 아마도 문화 예술 애호가라면 이제 봄맞이와 함께 3월의 홍콩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아시아 현대미술계 최대의 미술 장터로 명성을 굳힌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in Hong Kong)을 비롯해 그와 동시에 열리는 위성 아트 페어인 아트 센트럴(Art Central) 페어,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 예술 축제 '홍콩 아트 페스티벌(Hong Kong Art Festival)까지, 그야말로 '홍콩 문화 예술의 달(Hong Kong Arts Month)'이라는 문구에 걸맞은 행사가 펼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이자 중국 본토의 관문, 인기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명실공히 지역을 상징하는 아트 허브로 자리 잡은 비결은 뭘까?

수년 만에 확고히 자리 굳힌 아트 바젤 홍콩

홍콩에 15년 넘게 살았다는 한 저자는 책을 펴내면서 서두에 이 도시에 '문화의 사막'이라는 오명이 오랫동안 따라붙었다고 말한다. 그 배경에는 식민 통치라는 역사적 특수성의 영향으로 자신들만의 문화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한 홍콩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한 탓에 문화적 경쟁력이 가려진 측면도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화, 특히 미술 같은 영역은 자본 없이 성장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터. 게다가 규모는 작지만 동서양이 만나는 기항지답게 워낙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허브 도시라면 나름대로의 창조성이 싹틀 수 있는 환경임에 틀림없다. 물론 최근에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미술 시장의 거점이라는 이미지가 꽤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의 역할도 컸다. 스위스 아트 바젤을 운영하는 MCH 그룹이 지역 페어인 홍콩 아트 페어(Art Hong Kong)를 인수해 아트 바젤 홍콩으로 재탄생시키면서 시작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인 2013년의 일이다. 아트 페어는 2010년 이후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전체 미술품 거래량의 40%(2014년 기준)를 책임지는 각광받는 미술 장터가 되었다. '콘손'으로 등장한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스위스 바젤, 미국 마이애미에 이어 홍콩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삼은 아트 바젤은 특유의 기획력과 현지화 전략, 뛰어난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불과 2년여 만에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간판 아트 페어로 떠올랐다. 가고시안, 화이트 큐브 같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갤러리들이 앞다퉈 아트 바젤 홍콩을 찾기에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웬만해서는 6월에 열리는 스위스 아트 바젤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중화에도 성공하면서 지난해 5회 행사에서는 8만 명 가까운 관람객을 끌어들이었다.

제일 중요한 질문: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아트 페어인가?

"비교적 단기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콘텐츠의 질, 브랜드, 홍콩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세금의 유연성, 정부 차원의 후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품질'이에요. 브랜드라는 것도 결국은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니까요." 32개국 2백48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올해 페어(3월 29~31일)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을 찾은 아트 바젤 홍콩의 아시아 담당 디렉터 아델린 우이(Adeline Ooi)의 말이다. 그녀는 "우리가 갤러리 선정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많이 사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게 오만함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고 아쉬워하면서 "하지만 훌륭한 갤러리를 선보임으로써 시장에 진지한 마인드를 갖춘 컬렉터가 나오는 데 기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트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아티스트를 지원한다는 기본 철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상업성을 바탕으로 하는 아트 페어도 궁극적으로는 아티스트를 위한 생태계의 한 엔진이라는 얘기도. 공신력 있는 아트 페어와 경매 시장은 가격에 대한 의심이 많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경계심을 어느 정도 낮춘다. "미술품을 처음 접하는 구매자가 가격 산정을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숫자가 책자로 발표되는 2차 시장(경매)을 보다 공식적인 채널로 바라보기 마련이죠요. 그러다가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점차 갤러리나 아트 페어 같은 1차 시장으로도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살아 있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풍부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좋은(이미 인정받고 있거나 가능성 있는 작가의 작품을

보유한) 갤러리를 엄선해 소개하는 아트 페어의 역할이 사뭇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아트 바젤 홍콩의 경우에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오히려 참가 갤러리 숫자를 줄였고, 일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소화 가능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이미 '걸어 다니기 힘들다', '볼거리가 너무 많다'는 불평을 들어왔으니까요.(웃음)"

장내의 열전, 갈수록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볼거리

올해 아트 바젤 홍콩에 참가하는 한국 갤러리는 11곳으로 지난해 9곳에서 더 많아졌다. 신규로 참가하는 갤러리는 조현화랑과 갤러리바론, 우순갤러리다. 메인 섹션인 '갤러리즈'에서 국제갤러리, PKM갤러리, 아라리오갤러리, 학교재, 리안갤러리 등을 볼 수 있다. 올해는 수년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단색화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한국 미술의 면면이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메인 섹션을 보면 학교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중미술 작품을 내놓을 예정이고, 리안은 아방가르드 작가 이진용과 수없는 반복 작업을 통한 한국적 선이 돋보이는 회화 세계를 지닌 남춘모 작가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또 한두 명의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인사이트' 섹션에는 숲의 작가로 유명한 이배, 한국적 추상회화를 이끌어온 이강소, 힘찬 붓질과 색감이 인상적인 추상 작가 제여란 등을 소개한다. 큐레이터의 역량을 좀 더 확실히 가능할 수 있는 '캐비닛' 섹션에는 감용의 작가(국제갤러리)와 김구림 작가(아라리오갤러리)의 방대한 작품 커리어를 압축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대개 아트 페어 같은 행사가 열리는 국제도시는 전시장 바깥 풍경이 더 흥미로운 경우가 많다. 크고 작은 갤러리와 대안 공간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쏟아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외려 전시장 바깥에서 벌어지는 장외 열전의 수준이야말로 아트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말해주는 지표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홍콩 행정부가 국제 프로젝트로 아심 차게 개발 중인 시주룽 문화 지구(西九文化區·WKCD)를 볼까. 이곳에는 진통 오페라 극장을 비롯해 콘서트홀, 그리고 수천억원대의 가치가 있는 아시아 현대미술 컬렉션을 품은 메머드급 현대미술관 M+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완의 공간이지만 이곳에 설치된 M+ 파빌리온에서는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작가인 홍콩 출신 아티스트 삼순영(Samson Young)의 순회전 <Songs for Disaster Relief>가 열리고 있다(오는 5월 6일까지). 오는 3월 27일부터 홍콩해양박물관에서 열리는 미국 작가 조지 콘도(George Condo)의 홍콩 최초 개인전 <Expanded Portrait Compositions>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갤러리들의 면면을 보면 가고시안은 LA 출신의 제니퍼 가이드(Jennifer Guidi) 개인전, 콰이펑힌 아트 갤러리(Kwai Fung Hin Art Gallery)는 양치기 소녀 그림으로 유명한 중국 작가 아이쉬안(Ai Xuan), 푸에르타 로자(Puerta Roja) 갤러리는 스페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로랑 마르탱 로'(Laurent Martin Lu) 등을 각각 내세운다. 홍콩의 '아트 빌딩'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H 퀸스(H Queen's)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6년 KIAF를 방문하기도 하 건축가이자 저명한 컬렉터 윌리엄 림(William Lim)이 설계한 이 건물에 입주한 페이스 갤러리는 나라 요시모토(Nara Yoshimoto)와 로이 할로웰(Loie Hollowell) 개인전을, 하우스 & 워스(Hauser & Wirth)는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 개인전을,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 갤러리는 독일의 사진작가 볼프강 틸만스(Wolfgang Tillmans) 전시를 아트 바젤 개막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H 퀸스 빌딩에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서울옥션이 홍콩 상설 전시장이자 경매장으로 마련한 1백 평 규모의 SA+도 있는데, 현재 이곳에서는 개관전으로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과 일본의 스타 작가 구사마 야요이를 엮은 전시 <UFAN x KUSAMA>가 열리고 있다(3월 17일까지).

경매 현장과 프리뷰도 주목하라

아트 축제 기간에 빼놓지 말아야 할 행사로는 경매가 있다. 홍콩은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대 미술 경매 도시다. 아트 바젤 홍콩이 열리는 주간에는 항상 소더비(Sotheby's), 크리스티(Christie's), 폴리 옥션(Poly Auction) 같은 경매업체들이 세일에 나선다. 올해도 소더비에서는 자체 보유한 다이아몬드 컬렉션, 추정가가 홍콩달러로 4천만~6천만달러대인 진룡황제 시기의 꽃병, 조지 콘도와 파카스 같은 작가의 '대작'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홍콩 경매에 진출한 지 10년이 된 서울옥션도 새롭게 마련한 SA+ 전시장에서 오는 3월 29일 올해 첫 해외 경매를 연다. 단색화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회화뿐만 아니라 구사마 야요이의 'Pumpkin' 같은 해외 주요 작가들의 작품도 출품된다. 주요 경매에 등장하는 아이템은 미술품 말고도 빈티지 시계, 희귀 와인 등 다양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중요한 작품이므로 '눈요기'만으로도 희열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미술 경매가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행사라고 생각한다. 상당한 자본력과 구매 의지를 갖춘 아트 컬렉터들만이 경매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하지만 대부분의 아트 경매는 프리뷰 형식으로 문을 개최하며, 경매 자체도 프라이빗 세일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나 공개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글 <고성연>



1 2018 아트 바젤 홍콩 3월 29~31일에는 32개국 2백48개 갤러리가 참여할 예정이다. ©Art Basel 2 아트 바젤 홍콩의 다스카버리 섹션에 참가하는 메드 인 갤러리 작품. Lu Pingyuan, Look, Im Picasso(2017). 3 아트 바젤 홍콩의 메인 섹션인 갤러리즈에 참가하는 This is No Fantasy+diarnee Tanzer 갤러리. Michael Cook, 'Rule 2-Tunnel'. 4 서울옥션이 홍콩 상설 전시장이자 경매장으로 마련한 SA+에서 열리고 있는 <UFAN x KUSAMA> 전시장. 5 미국 작가 조지 콘도(George Condo)의 홍콩 최초 개인전인 오는 3월 말 홍콩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된다. 'Laughing and Screaming'(2018) ©George Condo/ARS, New York, 2018, Courtesy of the Artist and Skarstedt, New York and Sprüth Magers, Berlin, London, Los Angeles 6 3월 29일 열리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 출품 예정인 구사마 야요이의 Pumpkin(1981), 60.5 x 50cm, 추정가 미정. 7 리순갤러리의 아트 바젤 홍콩 전시 작품. Ryan Gander, 'Potent Moll of Ambition'(2018). 8 아트 바젤 홍콩에서 선보이는 제아란 작가의 'Usquam Nusquam'(2017). 9, 10 소더비 홍콩 경매에 등장할 진룡황제 시기의 꽃병 Yangca와 다이아몬드 컬렉션. 사진 제공 아트 바젤 홍콩,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e gallery, 소더비, 서울옥션 등

9 10

Montblanc

몽블랑 4810 데이트 오토매틱 & 보렘 데이트 오토매틱 워치 몽블랑의 워치 컬렉션 중에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타임피스로 손꼽히는 두 모델로, 남성 시계의 레드 골드 인덱스와 여성 시계의 골드 케이스가 마치 하나의 컬렉션처럼 잘 어울린다. 은빛이 감도는 은은한 화이트 컬러의 기묘세 패턴을 더한 다이얼과 레드 골드 플레이팅한 로마숫자와 핸즈, 그 위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몽블랑 스타 패턴을 새긴, 20세기 초 디자인 황금 여행에 대한 경의를 담은 4810 컬렉션 남성용 워치, 총 62개의 다이얼과 함께 은은하게 빛나는 지게 다이얼 위로 나뭇잎 모양의 레드 골드 컬러 핸즈가 지나가며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위치한, 여성스러움을 뽐내는 보렘 워치, 42mm 남성용 워치 3백30만원, 28mm 여성용 워치 6백34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1670-4810



Omega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글로브마스터 &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워치 세련된 맛과 애초부터 가진 기운을 풍기는 타임피스로, 역동적인 커튼을 위한 페어 워치로 제작이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컬렉션으로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받아온 컨스텔레이션 워치는 발음 모양의 클로 장식과 6시 방향의 컨스텔레이션(별) 장식, 날짜창이 돋보이는 남성용 워치다. 오메가의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의 여성 버전은 화이트 지게 다이얼 위로 11개의 반짝이는 다이얼로 세팅 인덱스가 잘 어울린다. 34mm 여성용 워치 8백만원대, 39mm 남성용 워치 8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문의 02-511-5797



BOSS 0968/S HUGO BOSS KOREA LTD. Phone +82 2 2210 5100



A Time for us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완벽한 한 쌍의 페어 워치를 제안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ulgari

불가리 오토 로마 & 루퀘이 에.메이션 워치 클래식한 루에도 캐주얼한 루에도. 모던한 매력을 발산해, 매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의 카를 워치, 남성을 위한 오토 로마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하학적인 팔각형에 토대를 둔 강렬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옥토 케이스로, 41mm의 볼드한 사이즈가 남성미를 더욱 부각한다. 여성을 위한 핏을 뜻하는 매력적인 루퀘이 컬렉션은 뱀의 비늘을 형상화한 유연한 분절 구조의 링크 브레이슬릿과 크라운에 장식한 카보숑 킷 젠스톤으로 우아함을 더했다. 33mm 여성용 워치 8백만원대, 41mm 남성용 워치 7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문의 02-2056-0171



Cartier

카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워치 & 탱크 드 카르띠에 워치 브랜드를 상징하는 전설적인 컬렉션으로, 오리지널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 세련된 품격을 갖춘 페어 워치다. 1971년 탄생한 카르띠에의 전설적인 탱크 워치의 새로운 버전이며, 합리적인 가격대의 스틸 케이스 버전으로 선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탱크 상토에 모델의 만곡형 케이스를 차용했고, 더욱 컴팩트한 직사각형과 둥글게 세운 시프트가 조화를 이루는 남성용 워치다. 여성용 워치는 1980년대에 첫선을 보인 탱크 드 카르띠에 워치를 좀 더 모던하게 재탄생시킨 버전이다. 브랜드의 상징적인 로마숫자와 레일 트랙 인덱스, 사파이어 크리스탈, 마치 한 피스의 주얼리 같은, 손목에 착감치는 유연한 링크 브레이슬릿이 특징이다. 22X30mm 여성용 탱크 워치, 4백30만원, 남성용 탱크 워치 26.60X45.10mm 6백30만원대 모두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에디터 이지연



아나스타 미운저



HUGOBOSS.COM

BOSS
HUGO BOSS

romantic Whisper

사랑을 뜻하는 하트 모티브와 핑크 컬러는 물론, 둘의 사랑을 단단히 묶어줄 매듭 디테일까지.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좋은, 로맨틱한 모티브를 표현한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 하트 세이프를 따라 빨간 루비와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교차 새긴 티파니 하트 펜던트 5백만원대 **티파니**. 사랑과 열정을 상징하는 장미를 형상화한 18K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97캐럿의 쿠션 컷 핑크 투르말린과 0.85캐럿의 페어 세이프 핑크 투르말린 원석을 더해 화려하게 완성한 피아제 로즈 네크리스 2천3백만원대 **피아제**. 궁극의 클래시컬과 유혹을 타지 않는 독보적인 우아함,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3.31캐럿의 하트형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95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카르띠에**. LOVE 이니셜로 디자인한 스텐링 살버 소재의 펠로마 그래픽 러브 링 20만원대 **타사키**. 영원함과 무한한 열정을 뜻하며, 더 나아가 영원한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이라는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인피니티 심볼을 담은 티파니 인피니티 카프 6백만원대 **타사키**. 브랜드의 상징적인 사쿠라 골드 컬러를 입은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리본 모티브 우리라 링 1백50만원대 **타사키**. 영원하고 충실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스크루 모티브의 브레이슬릿. 특별 제작한 스크루 드라이버로 연인의 도움을 통해 나사를 조여서 탈착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리본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카르띠에**. 옐로 골드 프레임에 답수 진주를 세팅해 손끝 너를 드러낸 입 모양을 하트로 디자인한 유머러스함이 돋보이는 데인저 하트 펜던트 3백만원대 **타사키**. 진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모티브가 경쾌하게 움직이는 불가리 불가리 큐오레 링 3백만원대 **불가리**. 브랜드의 공동 설립자인 알프레도 반들리프와 에스텔 아멜 부부의 이름을 이탤리아로 새긴 로맨틱한 디자인의 베를리 시그처 링 3백만원대 **반들리프 아멜**. 에디터 이지연

불가리 02-2056-0170 티파니 02-547-9488 카르띠에 1566-7277 타사키 02-3461-5558 피아제 02-540-2297 반들리프 아멜 00798-852-16123



A
AIGNER

#AIGNERLOVE

LOTTE GANGNAM | JAMSIL | SUWON | ULSAN | HYUNDAI MIA
CHEONHO | KINTEX | BUSAN | SHINSEGAE DAEGU | DEBEC PLAZA

AIGNERMUNICH.COM



dream Bags

클래식의 품격을 이어가는 브랜드부터 요즘 여성들에게
핫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컬렉션까지, 새로운 봄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잇 백 갤러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링: 유현정, 헤어: 이서영, make: 김은서

(맨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켈리 백에 가죽 심장자국을 통해 새롭게 탄생시킨 켈리그래피 백. 브랜드 이니셜 HERMÈS를 각 입파벳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백은 'H' 버전이다. 기존 클래식한 버전에서 좀 더 새롭게 켈리 백을 즐기길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29X21cm, 1천1만원대 **에르메스**. 토즈 하면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백으로, 브랜드의 트라이앵글이 메인 패턴이 되며, 즉 마구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시즌이다! 새롭게 탄생했다. 고급스럽고 포괄한 느낌이지만, 캐주얼룩과도 잘 어울린다. 30X26cm, 2백70만원대 **토즈**. 많은 20~30대 여성들의 워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샤넬의 가브리엘 백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크샤주 트윈드 소재로 선보인다. 30X20cm, 가격 미정 **샤넬**. 조나단 앤더슨이 로에베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로에베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백으로 자리 잡은 퍼플 백, 총 43개의 가죽 조각으로 이루어져, 가장 안 수납 상태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다. 24X16cm, 2백80만원 **로에베**. 브랜드 이니셜에서 영감을 받은 볼드한 골드빛 로고 'L'을 V에 맞춰 트윈드하인 침금장치가 열리는 트윈드 PM 백. 세련미 넘치는 특유의 매력으로 사랑받은 이 제품이 나와로 일렉트릭 블랙 에피 가죽으로 탄생했다. 데일리룩과 이브닝룩, 어느 스타일과도 잘 어울린다. 18.5X15cm, 4백10만원 **루이비통**.

에르메스 02-542-6622 **토즈** 02-3438-6008 **샤넬** 02-543-8700 **로에베** 02-3213-2275 **루이비통** 02-3432-1854

(맨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약아가죽 백의 대량사로 공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아래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사다리꼴로,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이 포인트인 디오네 백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백이며, 저절로 눈길이 가는 오묘한 매력의 플루 켈리로 선보인다. 20X21cm, 1천90만원대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피카부 백은 여성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다. 펜디에서 이번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피카부 에센셜은 가장 중앙에 위치한 비인피에를 얇게 한걸 가볍고 작은 사이즈로 선보여 젊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6X20cm, 5백90만원 **펜디**. 보타가 베네타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피아짜 미니 백. 프란치 카프 스킨 소재의 부드러운 패셀에 수공예 패턴으로 장식한 에지,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상징적인 인트레치아토 디테일까지. 20X13cm, 2백99만원 **보타가 베네타**. 간결하고 우아한 사선형 보드에 골드빛 메탈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준 미담 비브 백.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두루 잘 어울린다. 19X21cm, 3백30만원대 **로자비에**. 기존 사피아노 백 디자인에 클래식한 로고를 더해 한층 트랜디하게 선보이는 모노크롬 백. 달착 가능한 솔더 스트랩을 함께 제공해 실용성을 갖췄다. 26X20cm, 2백30만원대 **프라다**. 에디터 **베리진**, **이지전**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6 **펜디** 02-2056-9023 **보타가 베네타** 02-3438-7682 **로자비에** 02-6905-3370 **프라다** 02-3218-5331





New You

새로운 시즌, 새로운 룩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다. 미니멀과 맥시멈,
여성스러움과 중성적인 매력,
아방가르드와 스트리트 패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뉴 키 룩.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레드 & 블랙 도트 패턴 코트,
슬리브리스 셔츠, 스트라이프
쇼츠 모두 가격 미정 **프리카다.**



멀티컬러 레더 재킷 7백만원대, 블랙 &
옐로 점프 슈트 3백만원대, 도트 패턴
사스루 스커트 5백만원대, 실버 스트랩
롱부츠 2백만원대 모두 **다음.**



스웨이드 재킷 7백만원대, 퍼플 컬러 셔츠 1백만원대, 파이론 가죽 옐로 스카트 4백만원대 모두 보타가 베네타, 실버 주얼 장식 이어링 18만원 미네타니.

체크 재킷 3백60만원, 체크 스카트 1백42만원, 레이스 디테일 드레스 2백65만원, 주얼 포인트 로퍼 1백64만원 모두 구찌, 실버 초커 23만원 스와르브스키, 진주 드롭 이어링 8만9천원, 왼손에 착용한 진주 링 가격 미정, 오른손에 착용한 진주 & 크리스탈 링 11만8천원 모두 램미앙루스.



프린트 블라우스, 화이트
플리츠스커트, 레드 힐, 벨트
모두 가격 미정 **생만능**



민트 컬러 레더 재킷, 옐로 패턴
셔츠, 레더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토즈, 코르크 소재 스트랩 힐
99만7천원 **지미유**





화이트 벨트 로브, 화이트 패턴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버버리**, 화이트 패턴 디테일
롱부츠 가격 미정 **클로에**, 주얼 장식
이어링 55만원 **틸 타넬로**.

블루 체크 원피스, 옐로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실버 서클
이어링 15만원 **미네타니**.

모델 박지혜(에스텔)
메이팅업 최사노
헤어 이매뉴
아이스텐트 문진호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셀린노 02-6979-0607
보태가 베네타 02-3438-7601
미네타니 02-6905-3583
버버리 080-700-8800
클로에 02-543-1737
틸 타넬로 02-742-0502
구찌 1577-1921
스외로브스키 02-3438-6108
잠마일루스 070-8779-5090
에르메스 02-542-6622
디올 02-3480-0104
프라다 02-3218-5331
토즈 02-3438-6008
지미추 02-3443-9469





cradle of fine Watchmaking

가장 오래된 워치 브랜드 블랑팡(Blancpain)은 스위치 그룹에서도 명망 있고 가치 높은 시계를 만드는 클래식한 브랜드다. 과시하지 않는 디자인의 블랑팡 워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시계의 진정한 품격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유서 깊고 아름다운 시계를 만들어내는, 스위스 쥐라 산맥에 위치한 르 브라쉬의 블랑팡 공방을 <스타일 조선일보>가 찾았다.

블랑팡의 고향, 르 브라쉬(Le Brassus)

시계 브랜드로서 가장 오랜 스토리를 지닌 블랑팡이 위치한 르 브라쉬. 1984년 블랑팡은 시계를 만들고 조립하기 위해 르 브라쉬에 집을 마련했고, 현재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요람인 이곳에 7백여 명의 워치메이커와 장인을 두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생산 설비를 르 상티에(Le Sentier)에 둔 프레데릭 피게(Frédéric Piguet)를 인수했고, 지금은 르 브라쉬와 르 상티에 워치숍에서 워치메이킹 예술의 정수를 구현하고 있다. 그중 <스타일 조선일보>가 찾은 곳은 르 브라쉬다. 제네바에서 출발해 이미 이곳에 다다른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워치메이킹의 성지에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9세기 말 스위스 산악 지대의 중심인 발레 드 주는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 중심에 워치메이킹이 있었다. 고립된 지형의 험난함을 장점으로 삼아 워치메이킹 경험을 갖춘 농부들의 경력이 이끌려 많은 브랜드가 그곳에 정착했고, 그 후로도 계속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후에도 계속 발



© sponsored by BLANCPAIN



1 오직 자연광에 의지해 손을 고르며 작업해야 하는 섬세한 워치메이킹 작업. 2, 6 르 브라쉬에 위치한 블랑팡 공장. 긴 거울을 상징하는, 허공에 쌓인 눈과 침엽수가 인상적이다. 3 블랑팡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계 제작 노하우를 쌓아 왔다. 블랑팡의 공방은 시계 역사에서 가장 클래식한 장소 중 하나다. 4, 5 이 공방에서 제작한 르 브라쉬 카루셀 미닛 리피터(Le Brassus Carrousel Minute Repeater). 카루셀은 블랑팡이 독보적인 완성도를 선보이는 유서 깊은 기술이다. 7 블랑팡 공방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만들어내는 완성도 높은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만날 수 있다. 8 카루셀 무브먼트의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교한 무브먼트. 블랑팡을 상징하는 카루셀 무브먼트는 모두 르 브라쉬 공방에서 제작한다. 9 에나멜링을 위해 필요한 컬러풀한 안료. 10 블랑팡의 그랑 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모아 전시해둔 쇼케이스. 총 1천7백35개의 시계 부품이 소요된다. 11 블랑팡 르 브라쉬 공방에서는 총 7백여 명의 장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균 근무 연수는 10년 이상이다. 12 다이얼 에나멜링을 상징하는 꽃인 에나멜링을 형성한 에나멜 디스크 컬러링 워치. 13 마티르르와 소씨를 경가하는 스위스 전통문화를 표현한 에나멜 디스크 워치. 매년 새로운 버전의 디자인을 선보인다.



전해왔다. 바람 속에 쉬지 않고 날리는 눈발,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 사이로 이어지는 워치메이킹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개의 창문이란, 그림 속에서 본 오두막들. 이번 투어에서 안내를 해준 블랑팡의 본사 홍보 담당자는 형태와 구조만으로도 그 집에서 시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거 워치메이킹 하우스로 활용하던 집들이 르 브라쉬 곳곳에 자리한다. 최초의 시계 브랜드인 블랑팡은 스위스 쥐라(Jura) 지역에서 예한-자크 블랑팡(Jehan-Jacques Blancpain)이 1735년 설립했고, 혹독하고 긴 겨울 동안 고립된 이 지역에서 농장의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오두막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일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곳에 사는 이들의 이름도 피게, 보셰 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브랜드와 관련된 이름이 많은데, 오래 전부터 시계 조립 공장에서 일했거나 지금까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프랑스와 접경 지대여서 스위스의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 매일 출근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과거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고급 시계를 수출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스위스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 스위스를 더 특별한 곳으로 만든 이유임을 알 수 있다.

르 브라쉬,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요람

블랑팡 르 브라쉬 매뉴팩처에서 이어진 시계 공방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고도 진지했다. 완전한 시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기에, 굳이 예쁘게 가꾸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공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다. 눈발이 날리는 아름다운 산속 마을에서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은 설 새 없이 손을 움직인다. 작고 정교한 도구가 가득한 공방에서 메일을 보내는 이들은 오직 시계만 생각한다. 이곳의 주인 공은 시계지만, 이를 만드는 과정이 더욱 인상적이다. 르 브라쉬에서 블랑팡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을 생산한다. 목가적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에서 블랑팡의 워치메이커와 예술 장인은 역사 속 선조가 개발해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과 테크닉을 구현하고 있다. 한 지붕 아래에 인그레이빙, 에나멜 페인팅, 다마스쿠스 워치숍을 함께 두어 르 브라쉬를 예술적 워치메이킹의 중심지로 만들어준다. 현대적인 생산 라인보다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랑팡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브먼트를 조립하는 워치메이커를 두 명 안 되는 시계 브랜드 중 하나다. 2백 80

여 년 전 그랬던 것처럼 이 시계를 역시 워치메이커 개인이 완성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각각의 블랑팡 타임피스가 완성되기까지 손으로 직접 해내야 하는 수많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마스터 워치메이커는 워치메이킹 예술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통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도 깊은 정밀 기계 엔지니어링을 이해해야 한다. 세계 최초로 전통 중국 태음력을 탑재한 손목시계 혹은 최초의 카루셀 미닛 리피터 등의 혁신적인 성과물은 모두 이들의 작품이다. 또 하나의 범주인 시계 테크레이션에 능한 장인들은 돌, 과일, 연마기, 시포를 사용해 전통적인 피니싱 기법을 뽐내고, 심지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워치메이킹과 관련한 다른 작업과 동일하게 피니싱 작업 역시 손맛, 노하우,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을 요한다. 블랑팡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범주의 핸드 피니싱과 테크레이션 기법은 오랜 세월을 거쳐 계승되어온 워치메이킹 유산을 반영한다. 미적 아름다움과 기술적 정확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에나멜 페인팅이다. 르 브라쉬의 에나멜링 워치숍에서 블랑팡의 예술적인 측면을 이끌어내고 있는 마스터 인그레이버는 충실하게 그들의 전통적인 노하우와 창의성을 발휘한다. 그들은 작은 글과 현미경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새겨며 스케치를 완성한다. 모터의 윤곽 주변은 비워두어 입체감을 부여하는데, 덕분에 고귀한 금속 위에서 디자인이 생명력을 얻는다. 그 후 꼼꼼한 폴리싱이 빛 효과를 만들어내며 장인의 특별한 재능을 담아낸다. 그들 주변에는 항상 특별 주문품을 위한 스케치와 채색이 된 다이얼, 조금은 비밀스러운 완성품이 자리한다. 물론 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방을 방문한 몇몇 소수에게만 제공되는 특권이다.

이렇듯 블랑팡의 공방을 안내한 담당자가 보여준, 매뉴팩처의 보물이라 불리는 것은 시계를 만들기 위해 구입한 수십억원의 값비싼 장비가 아닌, 대를 이어 유지해온 블랑팡 공방에서 직접 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도구와 소형 기계다. 그리고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평균 근무 연수가 10여 년이 넘는 장인들은 블랑팡의 진정한 보물이다. 프레젠테이션 룸에서 보여준, 약 20년 전 블랑팡 공장을 알리기 위해 짝은 동영상에 등장한 젊은 워치메이커들이 오랜 노하우를 지닌 장인의 얼굴을 하고 공방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메일을 살아내며 블랑팡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에나멜링, 스위스 현지 워치



Brunello Cucinelli

특유의 여유롭고 우아한 실루엣과 최고급 소재로 사랑받는 브루넬로 쿠차첼리의 트렌치코트. 베스트 형태로 재킷과 셔츠, 니트와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하리 스트랩에 브루넬로 쿠차첼리의 상징적인 비즈 라인을 더해 더욱 특별하다. 4백63만원. 이너로 레이어드한 딥 블루 칼라의 데님 셔츠 1백67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차첼리**. 문의 02-3448-2931



Burberry

브랜드 자체가 트렌치코트를 상징화 만큼 아이코닉한 트렌치코트를 선보이는 버버리. 이번 시즌 레트로 열풍과 함께 브랜드 고유의 패턴을 코트 전반에 드러내 강한 개성을 보여줬다. 톱톡 튀는 네온 체크 패턴과 PVC 노광의 코팅 소재를 사용해 울퉁 가장 트렌디한 트렌치코트로 등극. 3백20만원 **버버리**. 문의 080-700-8800



fresh Trench

허리를 무심하게 조여 매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해지는 트렌치코트의 매력은 환절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스타일 조선일보)에서 엄선한, 브랜드의 DNA와 개성을 담은 여성 트렌치코트 신제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abiana Filippi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과 강靑한 길이로 어떤 채형이든 멋스럽게 어울릴 트렌치코트. 면과 리넨으로 재주해 가볍고, 앞은 가죽 스트랩으로 강靑한 형태의 하리 라인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선사한다. 2백78만원 **파비아나 필리피**. 문의 02-6905-3626



Prada

소매에 매치한, 풍성한머셔도 가벼운 타조와 칠면조 깃털 장식이 포인트인 블랙 컬러 트렌치코트.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퍼 덕분에 무거워 보이지 않고 유니크하면서도 신뜻하다. 기술과 허리에 프라다의 2018 크루즈 컬렉션 키 모티브인 고무 로고 패치를 다했다. 3백38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31 에디터 권유진



▲프라다 우편형 이너리트 이셔, 김민서

●sponsored by BROOKS BROTHERS



a great day of American Style

전통과 가치를 지켜오며 아메리칸 스타일을 대표하는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의 특별한 행사가 지난 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개최되었다. 가장 합리적이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대표하는 이 레전더리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빛나는 밤이었다.

전통과 혁신의 브랜드, 설립자에게 경의를 표하다

2018년 1월 10일 피렌체. 이날 저녁, 브룩스 브라더스 창립 2백 주년을 맞이해 향후 1년 동안 진행할 기념 행사 중 첫 번째 행사가 열렸다. 1818년 설립된 브룩스 브라더스는 최초로 기성복을 제시한 미국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며 긴 역사 동안 아이코닉한 제품(시어셔츠, 마드라스, 아가일, 눈-아이온 셔츠, 오리지널 버튼-다운 칼라 등)을 소개한 회사로도 알려져 있다. 브랜드 설립자 헨리 샌드 브룩스(Henry Sands Brooks, 1772~1883)는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재치 넘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브룩스 브라더스의 가장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아이템들은 이런 그의 발명과 혁신의 결과였으며, 당시는 오히려 매우 급진적인 아이템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브룩스 브라더스는 오늘날 베이식한 패션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아이템 중 일부의 도입과 대중화에 앞섰는데,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네이비 블레이저, 리벌스 스트라이프드 랩 타이, 그리고 색 슈트(sack suit) 등이 있다. 오늘날의 애슬레지(athleisure) 또한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브룩스 브라더스는 스포츠 의류를 일상생활에 접목한 대표적인 브랜드다. 결국 브룩스 브라더스는 패션계에서 매우 중요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으며 마침내 18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기성복을 선보였다. 이 의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헨리와 그의 아들들을 거쳐며 '브룩스 브라더스(브룩스가의 형제)'로 자리 잡게 했다. 브룩스 브라더스는 현재까지 늘 꾸준히 연구하고 혁신을 멈추지 않았으며 항상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신을 기념해 브룩스 브라더스는 헨리 샌드 브룩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창립 2백 주년의 밤을 기념하게 된 것이다.

클래식의 재해석, 컨템퍼러리 럭셔리로 재탄생하다

명소인 베키오 궁전(Palazzo Vecchio) 5백 인의 방(Salone del Cinquecento)에서 진행된 스페셜 런웨이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시그니처 컬러인 네이비 블루와 골드 컬러 위주로 디자인되었다. 이번 쇼는 1백 년 전 브룩스 브라더스가 만들어낸 아이템을 재해석해, 현대적이고 세련됨과 동시에 클래식한 요소가 곳곳에 녹아든 컬렉션을 선보였다. 총 51명의 모델과 함께한 이번 쇼에는 45개의 남성 룩과 8개의 여성 룩을 선보였다. 특히 여성 컬렉션은 현재 브

룩스 브라더스 우먼즈웨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잭 포즌(Zac Posen) 컬렉션을 선보였다. 또 쇼가 진행되는 동안 이탈리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53명 멤버가 현장에서 뉴욕을 테마로 한 훌륭한 연주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브룩스 브라더스의 이 특별한 쇼에서 슈트는 깔끔하고 세련된 룩으로 구성되었으며, 트라우저 안에 재킷을 집어넣어 연출하는 등의 신선한 스타일링이 돋보였다. 아우터웨어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기술 혁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카레고리코 스웨터와 함께 연출되었으며 아이코닉 캐빌 폴로 코트와 네이비 블레이저를 새롭게 해석해 소개하기도 했다. 브룩스 브라더스의 아이코닉 아이템 중 하나인 랩 스트라이프 타이는 벨트 형태로 변용해 선보였다. 아우터웨어는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해 인과 밖을 뒤집어 착용하는 등 제품 내부의 다양한 구조적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 룩은 고급스러운 텍스처, 버건디 실크 새틴 소재의 파자마 세트, 그리고 트위드 재킷과 함께 레이어드한 그래픽 스웨터 등을 소개해 매력적인 도시 여성의 룩을 제안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rooksbrotherskorea> 인스타그램: @brooksbrothers.korea

1 단장한 프레임 룩, 시브한 슈트, 베이식한 캐주얼 웨어, 브룩스 브라더스의 아이덴티티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창립 2백 주년 기념 패션쇼 파빌론. 2 돌아서는 순간 탄성을 지어내게 한 쇼장, 페르모 궁전. 3 패션쇼가 진행되는 동안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를 라이브로 즐길 수 있었다. 4-6 한층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관객을 사로잡은 브룩스 브라더스의 새로운 룩들. 7 이례적으로 다른 공간에서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2백 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동시에 열렸다. 8 미국의 대통령들이 가장 사랑한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 사진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브룩스 브라더스 캐미브 코트.



big Creation

창립 1백 주년을 맞은 미도가 하이엔드 브랜드의 국제적인 허브로 자리매김한 상하이에서 대형 이벤트를 개최했다. 혁신적인 커맨더 빅 데이트(Commander Big Date) 출시 행사를 개최한 것. 역동적인 파쿠르 선수들과 함께한 미도의 새로운 위치를 소개한다.

창립 1백주년 기념, 커맨더 빅 데이트 출시

1918년에 설립된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MIDO)가 올해 창립 1백 주년을 맞이해 브랜드의 대표적인 커맨더 컬렉션의 새로운 시리즈 커맨더 빅 데이트(Commander Big Date)를 출시했다. 지난 2018년 1월 25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 특별한 이벤트에는 미도의 CEO 프란츠 린더(Franz Linder)와 브랜드 매니저 스테파니 왕(Stephanie Wang), 스위치 그룹 차이나 대표 수전 첸(Susan Chen), 상하이 신유 그룹의 장유핑(Yuping Zhang) 대표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관계자와 미디어 파트너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도의 CEO 프란츠 린더는 "미도의 오랜 역사와 브랜드 가치를 담은 이 새로운 커맨더 시리즈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미도 창립 1백주년 이벤트는 1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미도는 커맨더 빅 데이트 출시를 통해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는 클래식 시계 제작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한다. 또 이번 1백주년 기념 상하이 이벤트는 미도의 한 세기 역사와 수년간 출시된 클래식한 모델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장에서는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 행사에서 만나볼 수 없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는데, 별도의 인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감상할 수 있는 3D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와 결합한 팬돌림 댄스 쇼를 선보이며 흥미로운 시각 체험을 선사했다. 커맨더 빅 데이트가 공개됨과 동시에 미도의 홍보대사 로버트 로버의 깜짝 등장 역시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 이벤트를 위해 중국과 프랑스, 호주 파쿠르(parkour) 선수 3명을 초청해 도시와 자연 속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액션 스포츠 공연을 개최한 것. 이 이벤트는 미도의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세히 만날 수 있었는데, CEO 프란츠 린더는 "기본적으로 미도는 건축물과의 연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파쿠리스트(parkurist)는 도시의 건축물과 환경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의 건축물을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콘셉트이며, 젊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미도의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경기를 선보인 파쿠르 선수 중 한 명인 킴 토마스(Kim Thomas)는 끈기와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스포츠 선수라는 점에서 미도의 근본 정신과 맥을 같이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가 전달하는 강렬한 열정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했다.

interview with Franz Linder(CEO)

Q1 미도의 CEO로서 창립 1백 주년을 맞는 의미가 남다를 텐데, 느낌을 말해달라. 미도의 창립자인 조지 시렌은 초대 사장이기도 했다. 나는 미도를 23년 전부터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창립 1백주년 기념 이벤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이며, 여러 축하 행사와 활동 등으로 2018년에는 더욱 강한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이 나와 미도의 목표이다. **Q2** 1백년 동안 이어온 미도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제품 그 자체다. 창립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한 커맨더 빅 데이트는 우리가 보여 주어야 하는 시계의 정수다. 미도의 프로덕트는 극적인 디자인적 변화를 주지 않으면, 가성비와 실용적인 면에 가치를 둔다. 최상의 퀄리티를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선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도의 정신이다. **Q3** 커맨더 빅 데이트에 이 시계만을 위한 차별화된 기술력을 담았는지 궁금하다. 빅 데이트(Big Date)에 답이 있다. 타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큰 데이트 창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력보다는 특별한 크기의 데이트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Q4** 커맨더 빅 데이트를 기획할 때의 에피소드나 콘셉트가 있었나? 창립 1백주년 기념 시계로 왜 커맨더 컬렉션을 택했나? 미도에 있어 커맨더는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컬렉션이다. 초창기의 커맨더 컬렉션은 미도의 얼굴과도 같았다. 커맨더는 1959년 론칭한 이후 디자인적인 변화가 전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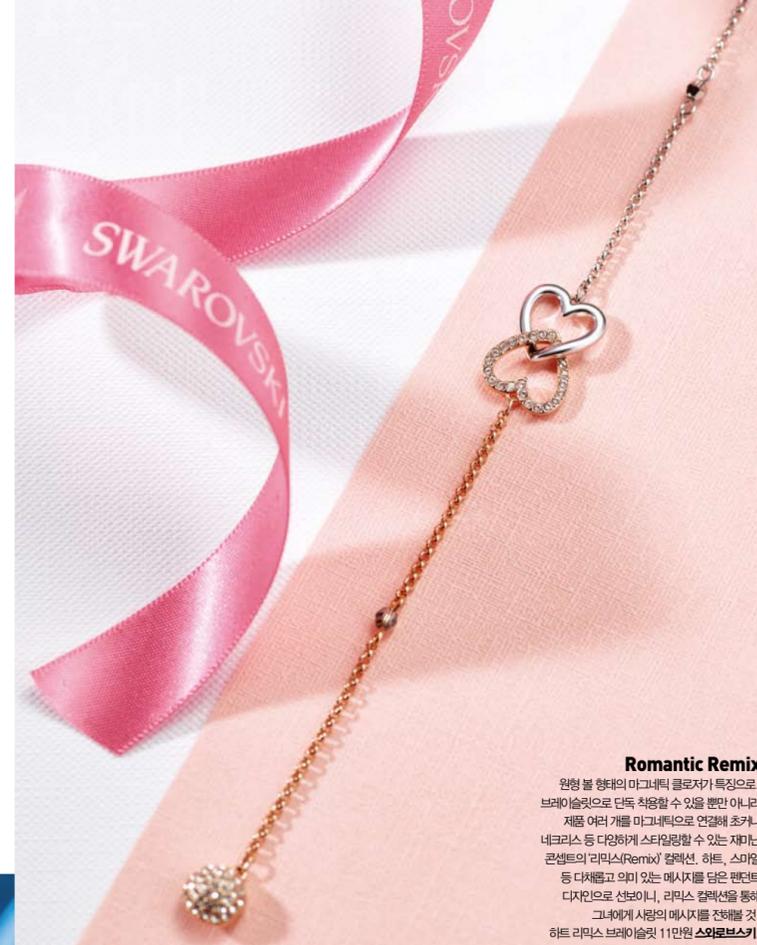
없던 컬렉션으로, 이는 미도의 정신인 '타임리스'(timeless) 디자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시계다. 이러한 이유로 창립 1백주년 기념 시계로 커맨더 컬렉션을 선정했다. **Q5** 1백년 간 지속되어온 브랜드는 매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행사장에서 다음 1백 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미도만의 특별한 계획을 말해달라. 첫째로 나는 브랜드가 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고객들은 매우 현명하고, 단기간의 즉흥적인 변화를 매우 잘 알아차린다. 미도는 단기적인 마케팅 전략, 가격 정책 등을 지양하며, 퀄리티 높은 상품을 이우 있는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철학을 지켜 나갈 것이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Q6** 많은 시계 브랜드에서 타임리스 디자인을 시도하려 한다. 미도 타임리스 디자인은 어떤 점이 특별한가? 사람들은 보통 타임리스 디자인은 클래식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 형태의 타임리스 디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이나믹하며 다소 스포티한 디자인의 멀티포인트 컬렉션도 타임리스 디자인 콘셉트다. 나에게 타임리스 디자인은 오늘 구매할 시계를 15년, 20년이 지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룩을 연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도 타임리스 디자인의 가장 큰 목표는 패션을 넘어 여러 시대를 걸쳐 아우를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이다.



1 브랜드의 대중적인 가치를 강조한 미도의 상하이 이벤트. 2 이번 행사를 위해 선보인 미도의 로버트 로버와 주요 인사. 3 상하이 이벤트 행사장에서는 역동적인 파쿠르 선수들이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를 일으켰다. 4 창립 1백 주년을 맞아 출시한 커맨더 빅 데이트 워치. 5 상하이 행사장 외부 모습. 선명한 오렌지 컬러는 미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컬러다.



● sponsored by MIDO



Romantic Remix
원형 별 형태의 마그네틱 클로저가 특징으로, 브레이슬릿으로 단독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여러 개를 마그네틱으로 연결해 초커나 네크리스 등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제1인 콘셉트의 리믹스(Remix) 컬렉션. 하트, 스마일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은 팬던트 디자인으로 선보이니, 리믹스 컬렉션을 통해 그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하트 리믹스 브레이슬릿 11만원, 스와로브스키.

Cosmic Rock
심플하고 여성스러운 워치 디자인에 크리스탈의 화려함과 시크한 감성을 더한 '코스믹 락(Cosmic Rock)' 컬렉션 워치. 핑클 디자인으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크리스탈을 상세하고 빼곡하게 수놓은 브레이슬릿이 매력 포인트다. 모던하면서도 화려함을 강조해 별도의 주얼리를 착용하지 않아도 룩을 연출할 수 있다. 로즈 골드 모델 54만5천원, 스와로브스키.



for my Love

눈부시게 반짝이는 영롱한 크리스탈의 광채는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한다. 다가오는 화이트테이에 잊지 못할 로맨틱한 순간을 선사해줄, 1백22년 전통의 크리스탈 패션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특별한 기프트 제안. photographed by park gum zoo



Life Long
이름부터 로맨틱한 라이프 롱(Life Long) 컬렉션. 연인과 연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애뜻한 감성을 매듭으로 형상화한 특별한 제품이다. 매듭 형태의 실루엣을 따라 상세하게 세팅한 크리스탈의 반짝임이 더욱 돋보인다. 직선 바 형태의 매듭 디자인이 포인트인 드롭형 이어링과 Y 실루엣 네크리스, 그리고 마치 손목에 실려 매듭을 묶어놓은 듯 유려한 곡선형 브레이슬릿까지. 모던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데일리의 룩에 로맨틱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 Y 네크리스 16만5천원, 핑클 스타일의 브레이슬릿 18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 sponsored by SWAROVSKI



Crystalline Stardust
동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새겨 내려갈 크리스탈인 스타더스트(Crystalline Stardust) 볼펜. 우수한 볼펜이 반짝이듯 보드에 가득 찬 크리스탈 장식, 그리고 이와 함께 아우라를 선사하는 파스텔 핑크 레카와 로즈 골드 플레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한다. 하이 퀄리티 리필 식으로 교체 가능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던한 스와로브스키. 문의 02-3438-6108 에디터 권유진

timeless Luxe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 작은 부분에서부터 스며들어 있는 브랜드의 정수. 하이엔드 뷰티 아이템이 전하는, 말이 필요 없는 그 특별한 품격.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코스메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터 다용용 컨센트레이션 밤은 갈라네 데이, 블랙 갈라네 나이트로 구분된 독특한 콘셉트의 진중 에센스. 자외선이나 생활 환경 등 외부에서 받는 다양한 자극으로 활동 주기가 변화하는 피부에 맞춰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라피레 에센스, 영양 공급과 생기, 메이크업이 잘 맞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수품이다. 고농축 원료를 사용하는 데코르테의 제품인 만큼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0ml x 2 68만원, 문의 080-568-3111

라피레의 플라티늄 라이 퍼플렉시 나이트 엘릭서 공극의 나이트 스킨케어로 불리는 라피레의 신제품, 고농도의 생루라 골복합을 함유해 피부 재생 과정을 책임진다. 저녁 세안 후 토너 다음 단계에 단 한 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사용하면 피부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밤 사이에 피부를 온전히 회복시킨다. 20ml 1백52만3천원, 문의 080-511-6626

플레드로 보메 사비르 라페르미앙 수프링 새로운 출시한 4D 탄력 에센스, 4D-부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피부의 자기 재생 능력을 자극해 골라겐 생성을 채운다는 원리로 피부 볼륨과 탄력을 개선한다. 항산화력을 촉진해 활성 있는 피부로 만들고 피하 조직이 피부를 탄탄하게 받쳐주도록 도와 윤곽 정리에 효과적인 제품을 만나보고 싶은 여성에게 추천한다. 40ml 32만8천원, 문의 080-564-7700

플레드로 보메 사비르 크림 피부의 장대한 힘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 초고가 크림, 우아한 향기와 풍부한 텍스처가 다른 제품에서 느껴보기 어려운 드라마틱한 효과를 제공한다. 높은 가격에도 출시 이후 VIP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크림 뿐 아니라 사비르프 전체 라인도 모두 사랑받고 있는 것이 더욱 놀랍다. 주름과 마백 기능성 인증은 물론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입증받았다. 40ml 1백60만원대.

라피레의 화이트 캐비어 일루미네이션 필 인퓨전 진주와 캐비어 향에서 영감을 받은 제형을 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화이트닝이 될 것 같은 매력적인 화이트닝 제품, 골드 캐비어 추출물을 함유한 라피레 필에 함유된 디글루코실 갈탄산 성분은 알려진 생성에 필요한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저해한다. 건조함 없이 촉촉한 화이트닝 제품을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30ml 67만6천원.

사비르 수프르미앙 보모 밤 타입 제형이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나이트 안티에이징 크림, 민감성 피부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텍스처가 견고하다. 피부를 재건하는 오일과 버터 성분을 함유해 즉각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천연 허브들이 수 있도록 미사지하며 비비는 것이 포인트. 50ml 80만원, 문의 080-549-0216 에디터 배미진



도시 환경의 역습, 피부를 공격하다

피부만 생각한다면 봄은 마냥 반가운 계절이 아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꽃가루, 자외선, 햇빛 알레르기, 건조함 등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도시의 대기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피부 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각종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 미세먼지 비상조치에 따른 일일 문자가 휴대폰에서 울리고, 출근 전이나 외출 전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훨씬 작고, 자음이 머리칼의 1/1000 수준인 초미세 먼지도 섞여 있다. 장시간의 외출로 미세먼지가 피부에 오래 달라붙어 있으면 유해 성분이 피부 속에 침투해 모공이 막히고 넓어지면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주름과 다크 스팟까지 생성된다. 예전과 달리 단지 흉만지 개념이 아니라 중금속 이다량 섞여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도시 라이프를 위한 3D 안티폴루션

미세 먼지와 피부 노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코스메틱은 피부를 위한 초미세 보호막 역할을 하는 미스트를 출시한다. 도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하는 세 가지 상호 보완 작용과 다섯 가지 자연 유래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D-폴루션 에센셜이 그것이다. 3D 안티폴루션 효과를 갖춘 신개념 미스트로, 피부를 3단계에 걸쳐 도시 공해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자가 방어 능력을 강화해주는 제품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특별한 3D 효과는 D 폴루션이다. 레드 알지(Leads alge, 해조와 남메리카 빈 추출 성분)가 피부 보호 필름으로 변화해 공기 속 오염 물질이 피부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준다. 두 번째는 D 스트레스 효과. 중국 황실의 고급차로 알려진 실버 니들 티(silver needle tea)와 사설의 특별한 생산 과정을 거친 블루 진저 PFA 추출물이 황산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자가 방어 기능을 촉진한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진정 작용으로 피부 산화 스트레스에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항하는 것. 세 번째는 D 펜스다.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선인장에서 추출한 사막 효모 추출물이 피부 보연의 수분 장벽 기능을 높여 피부 장벽을 보다 튼튼하고 강력하게 강화한다. 극도로 미세하고 섬세한 입자가 피부 속에 침투해 미스트를 뿌리는 즉시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미세먼지도 이제 쉽고 간편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된 것. 출근이나 외출 전, 스킨케어 리추얼 맨 마지막 단계에서 가볍게 분사하면 끝이다. 메이크업 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해 지수가 높은 날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활용해도 좋다. 알찬 미스트는 수분과 함께 미세먼지까지 피부에 붙을 수 있어 봄철 사용을 꺼리게 하지만, 사설 D-폴루션 에센셜은 분사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보호 필름으로 변화해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2018년 트렌드 중 하나는 가성비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즉 가격보다는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구매 의사 결정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전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미세먼지가 생활 패턴은 물론 뷰티계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다. 이제 도심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활기있게 도시를 누벼보자. 후디가 간편하고 가성비까지 충족시키는 사설 D-폴루션 에센셜이 그 솔루션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80-332-2700 에디터 배미진



도시 공해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미스트, 사설의 D-폴루션 에센셜 48g 12만2천원.

Protect from pollution

날씨와 계절을 불문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비롯한 각종 도시 공해, 스트레스가 피부를 공격하고 있다. 사설에서는 매일 쉽고 빠르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미스트를 출시해, 도시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한다. 토털 안티폴루션이자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솔루션 D-폴루션 에센셜이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sponsored by CHANEL

피부 본연의 건강한 빛을 깨워주는 화이트 캐비아 컬렉션

움츠리고 있던 어깨를 펴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변신을 꿈꾸는 볼, 스위스 생명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스킨케어 효능과 최상의 경향을 선사하며 럭셔리 스킨케어의 입지를 다져온 라프레리의 이런 여성들의 영원을 담아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영롱한 진주빛 광채가 도는 탱탱한 피부로 기뻐줄 강력하고도 특별한 솔루션을 마련했다. '빛을 포착하고 빛의 움직임을 담는다'는 사선술의 선구자 루이 다케르의 말처럼 피사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한층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피부의 힘을 강화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아낸 것. 그리고 마침내 이를 적용해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드는 궁극의 크림,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를 탄생시켰다. 이로써 기존의 화이트 캐비아 컬렉션에 탁월한 브라이트닝과 피민 케어의 완벽한 라인업을 갖췄다. 라프레리의 과학자들은 수년간 5만 개의 분자를 선별해 검사하고 연구한 끝에 마침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궁극의 일루미네이팅 분자, 루미도스(Lumidos)를 발견했다. 특히 성분인 이 혁신적인 분자는 착색되거나 색소가 침착된 부위에 집중적으로 작용해 결집 없는 광채 피부를 만드는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의 핵심 성분. 일반적으로 화이트닝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부를 착색하게 만드는 멜라닌 합성 과정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루미도스 성분은 멜라닌을 합성하는 주요 효소인 티로시나아제의 멜라닌 합성을 억누르는 가장 강력한 억제제 역할을 한다. 최적의 농도로 발란스한 루미도스 포몰라는 강력한 브라이트닝 전달 시스템인 스마트 크리스탈 화이트를 통해 깊이 흡수되어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하고, 착색한 안색을 맑고 환하게 가꿔준다.

탄력 광채 피부를 만드는,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는 화이트 캐비아 컬렉션에서만 사용하는 진귀한 골드 캐비아 추출물과 최첨단 생명 공학 연구로 탄생한 인스클루시브 셀룰라 콤플렉스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 탄력을 끌어올리고, 세포에 활력과 생기를 더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만큼이나 패키지가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주얼리 상자를 연상시키는 진주빛 원통형 패키지에 캐비아 비즈를 본뜬 링을 더해 강력한 빛의 힘을 표현했다. 보다 신선한 상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도 돌보인다. 이렇듯 피부의 바운스를 누르면 에어리시 타입의 펌프가 직통해 적정량의 크림이 나오도록 설계한 것.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를 사용하면 2주 후부터 조금씩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4주 후부터 눈에 띄게 빛나는 피부, 8주 후부터는 빛으로 가득 채운 듯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마치 진주처럼 보이는 화이트 펄 캡슐 알갱이가 인상적인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은 어둡고 칙칙한 피부, 미세 잔주름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붉어진 피부 톤에 집중적으로 작용해 건강한 진주빛 광채와 탄탄한 피민 효과를 선사하는 멀티 브라이트닝 세럼. 정교하게 만든 화이트 펄 캡슐에는 피부를 맑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글루코실 갈락산, 화사한 피부로 가꿔주는 비타민 C 유도체를 농축해 담았다.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와 마찬가지로 귀한 골드 입페리얼 캐비아 추출물과 라프레리의 독자적인 성분인 셀룰라 콤플렉스를 함유해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와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 피부는 투지하고 가꾸는 만큼 달라질 수 있다. 착색하고 불규칙해진 피부 톤, 탄력이 사라진 피부가 부쩍 신경 쓰이는 볼, 우아하고 화사한 광채 피부와 탱탱하고 탄력 있는 동안 피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라프레리의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와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을 만나보길.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 60ml 88만8천원,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 30ml 67만6천원. 문의 080-511-6626 에디터 배미진

science of
Luminous Skin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성분, 최첨단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정교한 빛의 과학, 그 정수를 담은 라프레리의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와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 이들은 이 시대 여성들이 꿈꾸는 탄탄하고 우아한 광채 피부를 실현하는 최상의 선택임이 분명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tylish Duo

동시대의 트렌디한 감성과 아이코닉한 전통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은 럭셔리 브랜드의 임무이자 숙명. 스타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 퍼퓸드 예외는 아니다. 올봄 새롭게 선보이는 프라다의 향수 듀오 라팜프 프라다 로와 르움프 프라다 로는 이를 증명하는 최상의 결과물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프라다의 패션 DNA가 깃든 향수

최근 럭셔리 패션 하우스가 선보이는 향수가 선조들은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제품이 있다. 프라다를 상징하는 듀오 향수에서 새롭게 진화를 거듭한 새로운 컬러 향수, 라팜프 프라다 로, 르움프 프라다 로가 그것. 지난 1월 25일 청담 프라다 부티크에서 의류와 백, 슈즈 등 패션 소품과 함께 선보인 각각의 향수는 역사와 전통,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무장한 브랜드의 DNA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보통은 기존 클래식 라인에 동일한 디자인에 매칭 건축 요소이 기도 한 기하학 패턴을 더했고, 송아지 가죽에 빗살무늬 공정을 거쳐 광택을 입힌 사피아노 가죽으로 향연을 감쌌다.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사피아노 가죽의 존재감은 기하학적, 여기에 청련 연도, 사노이 왕실의 문장과 매듭을 모티브로 한 프라다 말리노 로고를 새겨 넣어 완성도를 높였다. 패션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라이트 블루와 파스텔 핑크 컬러 역시 화사하고 신선한 느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남녀를 위한 스타일리시한 향

노블 디자인만큼이나 고급스럽고 세련된 향도 매력적이다. 먼저 선보인 여성을 위한 라팜프 프라다 로는 플로럴 그린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다. 따뜻하고 풍부한 프러자나 꽃 향에 상쾌한 민디린이 어우러져 싱그러우고 풍부한 플로럴 향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풍격 있고 세련된 이미지와 여성스러운 매력을 동시에 어필하기에 제격인 셀, 감각적인 남성성을 위한 르움프 프라다 로는 깨끗하고 파우더리한 우디 그린 계열의 향으로, 전형적인 남성 향수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시그니처한 로인 아이리스 향에 그윽한 풀 내음이 나는 네롤리, 스파이시하면서도 상큼한 치차기 조화를 이룬 신선하고 신뜻한 우디 향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 덕분에 말끔한 수트 차림이나 감각적인 캐주얼 룩에도 두루 잘 어울린다. 두 제품 모두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무드를 선호하는 퍼퓸 매니아들의 스타일링 마무리로 추천할 만하다. 패션이 아닌 고유의 미학을 트렌디한 향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프라다 퍼퓸, 환한 향기 대신 후각으로 느끼는 날더는 패션, 시간과 향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련된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라팜프 프라다 로와 르움프 프라다 로가 좋은 답이 되어줄 것이다. 라팜프 프라다 로 100ml 17만1천원, 르움프 프라다 로 100ml 14만원. 문의 02-3443-1805 에디터 권유진



● sponsored by La Prairie

● sponsored by PRADA



Aman Venice like no other Place

〈동방전문록〉을 남긴 마르코 폴로부터 티치아노, 비탈디의 고향이자 화대의 열매까지 만년 떠어난 지성이기도 했던 카사노바의 주무대였던 베니스. 세상 어느 도시와도 다른,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 수상 도시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아드리아해의 여왕'이라 불리던 해상 제국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관광 도시로서 여전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본점 인구가 5만 명 정도에 불과한데, 연간 방문객이 2천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 그 인기를 알 만하다. 4년 전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부부의 허니문 장소로 낙점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호텔에도 자연히 눈길이 쏠렸다. 베니스의 심장부외도 같은 대운하를 끼고 있는 우아한 팔라초를 개조해 완성한 아만 베니스(Aman Venice). 단순한 화려함이 아닌 이곳의 진짜 매력을 들여다봤다.



“오 이방인이여, 그대가 누구든 이 마법의 도시를 처음으로 여행한다면, 나는 그대를 행운아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쁘게도, 잠으로 깨어난 독특한 아름다움이 그대 앞에 연출되리니, 그것은 일찍이 어떤 그림도 묘사하지 못한 것이요, 어떤 책도 기술하지 못한 것입니다.”
_ 윌리엄 딘 하우얼스, 〈Venetian Life〉 중에서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해 끝자락, 고요한 석호(瀉湖)에 펼쳐진 1백18개 섬을 4백여 개 다리가 단단히 잇고 있는 베니스.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미국의 소설가이자 평론가 윌리엄 딘 하우얼스(William Dean Howells)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석호로 흘러드는 강과 바닷 물이 만든 늪지에 수천만 개 나무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주춧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는 이 직 같은 '물' 도시를 처음 보고는 바로 사랑에 빠진 문인과 예술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아름다운 운하를 유유자적 누비는 곤돌라와 수상 버스, 미로처럼 좁은 골목들 사이로 솟아 있는 늪름한 중세 건축물,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형형색색의 가면과 유리공예품...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다 해도 이처럼 독특하고 수려한 풍경에 눈길을 사로잡히지 않기는 어렵고, 음울한 듯 낭만적인 듯 종잡을 수 없는 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알아갈수록 다면적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는 더욱 힘들 테니 말이다.

탈케와 니콜레옹이 사랑한 수상 도시의 대운하

저마다의 시선과 감성으로 이 매혹의 고도(古都)를 품어낸 이방인들은 마치 연인을 대하듯 갈망하고 그리워하기도 했고, 열광적인 찬사를 쏟아부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14~15세기에 유럽을 호령하던 찬란한 옛 해상 무역 강국의 스러짐을 못내 안타까워하며 탄식을 내뿜기도 했다. 한국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도 베니스를 몹시 좋아했던 인물이다. 평생 유럽 곳곳을 떠돌며 문화에 매여 살았던 릴케는 베니스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씩 체류하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덕분에 길 안배를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지리에 환했을까더러 도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다. 특히 그의 친구이자 후견인 같았던 마리 폰 투른 온트 타시스 후작 부인의 초대로 아드리아 해 안에 위치한 두이노 성(탈케 문화의 정점에 속하는 연작시 '두이노의 비가'를 남게 한 곳)에서 머물렀을 때 인근 도시 베니스에 관한 각종 문헌을 '철렵'하고 자주 그림과 골동품 등을 보러 다니는 '예술 신책'을 즐겼다. 운 좋게도 그는 베니스에서 지낸 나날의 대부분은 카날 그란데(Canal Grande, 대운하)에 인접한 후작 부인 소유의 집이나 호텔에서 묵었다고 한다.



1 니콜레옹을 위시해 수많은 이들이 감탄케 한 베니스의 'Z' 자 형태 대운하(Canal Grande). 2 카날 그란데를 바라다보는 아름다운 호텔 아만 베니스(Aman Venice). 16세기부터 내려오는 대저택 팔라초 파파도폴리(Palazzo Papadopoli). 사진 SY KO 3 여전히 파파도폴리 가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만 베니스는 베니스 중심부와 가까우면서도 호젓한 파파도폴리 가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만 베니스를 갖춘 '엘로 디아날 폴'. 4 대운하 전경을 갖춘 '엘로 디아날 폴'. 5 이탈리아 스타 세프 올리디(Davide Oldani)가 기발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6 호텔 내부의 우아한 공간. 7 대운하가 내려다보이는 운치 있는 조경을 품은 카날 그란데 스위트. 8 네오-바로크풍의 대가로 이름을 날린 티에폴로(Tiepolo)의 프레스코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알도바 티에폴로 스위트. 9 네오-바로크풍의 근사한 사치는 고서 컬렉션도 갖추었는데, 투숙객들에게 개방돼 있다. 9 베니스에서 드물게 정원과 운하를 동시에 끼고 있는 아만 베니스. 홈페이지 aman.com, 사진 아만 베니스 제공.



1797년 베니스를 침략했을 당시 나폴레옹이 감탄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Z' 자 형태의 카날 그란데. 〈탈케의 베네치아 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1897년 처음으로 베니스를 여행했을 때, '유명한 저택인 벤드라민과 파파도폴리 길을 지나가는 카날 그란데 위로 가는 여행을 했다고 기뻐하면서 이미 대운하의 매력에 푹 빠져있음을 드러낸 적이 있다. 아름다운 팔라초(palazzo, 이탈리아 귀족의 저택이나 궁전의 행렬을 볼 수 있는 카날 그란데 수상 여행은 그때나 지금이나 베니스를 감상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 아니던가. 베니스에서 내로라하는 부유한 가문들의 보금자리였던 팔라초는 호텔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운하를 굽어보는 명품 호텔 중 하나가 바로 탈케가 직접 언급하기도 한 팔라초 파파도폴리(Palazzo Papadopoli)다.

아름다운 정원과 대운하를 동시에 품은 호텔, 아만 베니스

파파도폴리 가문 소유인 팔라초 파파도폴리가 호텔로 변모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원래는 1550년부터 존속해온 대저택을 스물 러서리 리조트 브랜드로 유명한 아만(Aman) 그룹에서 5년 전인 2013년 베니스의 '잇 플레이스'로 낙점해 아만 베니스라는 호텔로 탈바꿈시킨 곳이기 때문이다. 이듬해 베니스에서 결혼식을 치른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허니문 장소로 택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기는 했지만, 사실 아만 베니스는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존속해온 명소의 재탄생인 셈이다. 이곳은 처음에는 부유한 무역상이던 코치나(Coccina) 가문에서 16세기에 활동한 건축가 잔자코모 그리기(Giangiacomo Dei Grigi)에게 의뢰해 지은 저택이었는데,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손을 거치다가 19세기 중반에는 현 소유자인 파파도폴리 가문의 차가 됐다. 당시 파파도폴리가 사람들은 네오-르네상스와 로코코 스타일을 이끈 미켈란젤로 구겐하임(Michelangelo Guggenheim)에게 건물 내부 리모델링을 맡겼다. 구겐하임(미국의 구겐하임 집안과는 상관없는 인물)은 나선형으로 우아하게 뻗은 계단이며 선장, 문손잡이 등에 가문의 문장(紋章)을 새겨 넣었고, 베니스 최초의 엘리베이터와 전기로 작동하는 상동리엘을 설치했다. 그리고 보다 완벽한 보금자리를 창조하기 위해 풍성한 녹음을 자랑하는 근사한 정원을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팔라초 파파도폴리는 카날 그란데에서 드물게 규모 있는 정원으로도 명성이 자자했다. 탈케는 '베니스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곳은 파파도폴리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18세기부터 내려온 황홀한 프레스코의 향연

아만과 손잡으면서 호텔로 변신하기는 했지만, 파파도폴리의 후손은 여전히 건물 한쪽에 살

고 있다. 물론 그들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가꾸온 정원 역시 건재하다. 호텔 투숙객들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면서 멋진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아만 베니스의 정원은 때때로 갤러리나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매력적인 전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는 일본 훗카이도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칸 야스다(Kan Yasuda)의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담스러운 정원은 그저 아만 베니스가 지닌 다양한 매력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호텔로 지은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었던 만큼 넓적하고 구조와 동선이 인력한 객실은 물론이고 고아한 품격이 느껴지는 계단과 문, 벽, 천장 같은 인테리어는 오랜 시공을 거친 공간답게 존재감을 뽐내면서도 21세기에 걸맞은 현대식 시스템을 고루 갖추고 있다. 많은 이들이 꼽는 아만 베니스의 백미는 '프레스코(fresco)'다. 그도 그럴 것이 18세기 초 이곳은 티에폴로(Tiepolo) 가문의 소유가 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곳곳에 티에폴로 가문의 문장을 볼 수 있고, 네오-바로크풍의 황홀한 서재와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도 티에폴로 가문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티치아노, 티토레토, 베로네세 등 16세기 베네치아 거장들의 전통을 이으면서 프레스코화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던 잠비티스타 티에폴로(Giambattista Tiepolo)와 그의 제자들이 그린 작품도 일부 객실과 특별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다. 한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미술사상 어느 화가보다도 프레스코화로 많은 벽과 천장을 매운 티에폴로는 '경박할 만큼 가벼운 색상'이라는 평화를 받기도 했지만, 출중한 대장 기술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양한 범위의 색과 그림자를 사용한 탁월한 실력, '전체를 꿰뚫어보고 세심하게 계획한 뒤 작업에 임하는 대형 미술 작가'로서의 천재성을 갖춘 경이로운 아티스트였다.

이렇듯 티에폴로의 프레스코와 1571년 레판토 전투에서 유래한 커다란 유리 전등 같은 박물관에서나 볼법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아만 베니스는 평온과 나만의 집 같은 프라이버시를 갈망하는 방문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일 수 있다. 실제로 운하 반대편에서 걸어서 이 호텔을 드나들 때는 베니스 특유의 빨간색 수자가 적힌 고풍스러운 대문 앞에 서서 집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자체로도 베니스의 명물이지만 산 마르코 광장, 리알토 다리, 라 페니체 극장 같은 명소들과 멀지 않으면서도 좁은 골목을 꼭 채운 관광 인파 속에서도 마치 다른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아만 베니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다. 객실 수는 티에폴로의 프레스코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스위트, 카날 그란데 전망과 운치 있는 백니로를 갖춘 스위트 등 2개의 스위트룸을 포함해 24개에 불과하다. 글고선



editor's Pick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며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가 추천하는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레르 보에 사피프 사본** 출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대중들을 찾아 웃음을 장도로 풍부한 기쁨과 럭셔리한 향기, 뛰어난 콜린 성분까지,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고 싶은 비누. 비누의 향기를 띠고 있지만 물과 닿는 순간 향이 사라진다. 100g 13만8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배미진*

디올스킨 포어 퍼펙트 쿠션 꾸뛰르 에디션 럭셔리 쿠션 팩트의 결정판이자 텍스처 면에서 거의 최고다. 디올의 상징적인 캐시미어 패브릭의 가죽 케이스로 선보이는 이번 꾸뛰르 에디션은 핸드백 속 멋진 액세서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 더불어 아주 가볍고 산뜻하면서 무침 없이 보습보충한 마무리감을 선사하고, 16시간 지속되는 루이 나스 매트 파우더 효과를 더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선한 향이 매투하고 화사한 메이크업을 유지시킨다. 15g 7만8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권유진*

랑콤 로즈 젤리 틴트 젤리를 연상시키는 투명한 촉촉한 텍스처에 장미 꽃잎을 더해 아삭아삭하고 재빠른 콘센트의 패카처럼 탄탄한 림 젤리 틴트. 꽃잎이 입술에 묻든 듯 자연스럽고 촉촉한 핑크 림을 연출해 소녀의 입술처럼 청순하고 여려 보이는 림에 이르기까지 완성한다. 3.6g 3만3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권유진*

이슬 레저렉스 이온미믹 핸드 워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산뜻한 기분을 만끽하게 해 줄 시트러스 계열의 핸드 워시. 유럽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특유의 모던한 패키지로 사랑받는 제품이다. 라벤더, 로즈마리, 라벤더 오일 등 순한 식물성 향료를 함유해 향이 은은하고 내추럴한 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준다. 500ml 5만원.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권유진*

라 메르 합질 거친 입술을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립밤.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거칠게 녹아내리며, 시원하고 산뜻한 향기가 입술 피부를 살해하게 만든다. 입술 자질 회복을 함유해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장점. 9g 8만원. 문의 02-3440-2775. *by 에디터 배미진*

실론 글라이드 인스파이스 여성의 인종과 함께 팔라디, 거드레이, 바키나 라인까지 잡에도 손쉽게 제모할 수 있는 초소형 가용 레이저 제모기. 렌즈에서 산출된 울려 퍼지는 울트라 바우클레 색상을 적용한 외형이 눈길을 끈다. 기존 제품보다 무려 2배 강력한 속도로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제모할 수 있으며, 무리한 조사 기능을 갖춰 안전 구멍이 평평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49만원. 문의 080-246-1234. *by 에디터 이지연*

나스 시틴 립 립술 블러 리네트 세틴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를 지원하는 립 제모. 체리 블로섬 핑크 컬러가 볼과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립 메이크업을 완성해준다. 치근에 톡톡 두드려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것도 팀. 2.4g 3만7천원. 문의 02-6805-3747. *by 아시스트 에디터 김은서*

데오르테 AQ 리프라이터 인텐시브 크림 스킨케어으로도 풍부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는 데오르테의 하이엔드 크림. 향과 부드러운, 지속적인 생기 공급까지, 프리미엄 화장품의 가치를 고스란히 담았다. 촉촉함과 영장 공급 안에서 기분이 높은 크림이다. 45g 1만8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배미진*

SK-II 피아셀 트리트먼트 에센스 가장적인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케살이 바뀌는 이 시기에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다. 브랜드의 독자적인 효모 성분 타르를 90% 이상 함유해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광채 등 여성들의 피부 고민을 전 반적으로 해결하며 피부 불연의 건강한 리듬을 되찾게 해 주고, 무연한 피부로 가꾸 준다. 세안 후 첫 단계에 토너처럼 사용해도 되고, 피부가 유달리 푸석해 보일 땐 화장에 중추적 적서 워터 팩으로 이용해도 좋다. 75ml 9만2천원. 문의 080-023-3333. *by 에디터 이지연*

시슬리 후드 블링 브라이팅 인티모쿠션 쿠션 파운데이션 추천한 피부 톤, 트러블 등 예민한 피부로 고민하는 여성을 위한 시슬리의 첫 번째 쿠션 팩트. 가벼운 텍스처와 미세한 필 입자가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하고, 결정 없이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14g 13만원. 문의 080-549-0216. *by 아시스트 에디터 김은서*

에스티 로더 퍼펙트 스킨 프로 리프라이팅 링클 코렉터 볼과 턱선, 팔자 주름 등 노화의 흔적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품.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생분해 가능한 리프라이팅 효과를 선사한다. 콜라겐에 작용하는 고분자 이펙트 펩타이드-8 성분이 믿을 만하다. 15ml 8만2천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배미진*

르 리본 허니키 보드모션 이미 국내에도 두꺼운 마니 슌을 확산한, 2006년 뉴욕에서 탄생한 핸드메이드 파퓰러스 르 리본. 자느 있고 독창적인 조합들과 직접 해 향수를 만드는 실용성을 태모, 향수명과 유행, 제조물 등이 타이틀된 빈티지한 무드의 라벨링이 시그처 포인트다. 평소 너무나 아끼는 향수기에 보다 컬렉션을 새롭게 선사한다는 스에 무척이나 기대적인 제품이다. 매력적인 허니키 향으로 선 보인 이 보드모션은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주는 것은 물론, 따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은은한 향이 지속된다. 250ml 5만3천원. 문의 02-3440-2591. *by 에디터 이지연*

샤넬 코코 마드모젤 오 드 파르페 앙상블 전설의 향수 샤넬 N5가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클래식한 향이지만, 코코 마드모젤은 우아하면서도 반항적인 자유분방한 여성을 담은 가벼우면서도 관능적인 향이 특징. 상쾌한 시트러스와 부드러운 우드, 그리고 깊고 이국적인 파슬리 향을 더해 특색 있는 향부터 여성스럽고 색다른 진화까지, 다양한 매력을 지닌 여성 향수다. 100ml 23만2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SHOW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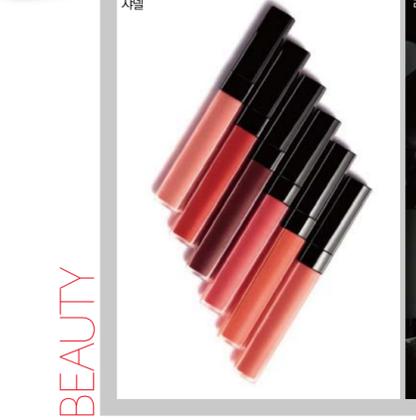


프라다 프라다 캔디 슈가 팝 프라다는 워트 있고 통통 튀는 분위기의 캔디 슈가 팝을 선보인다. 싱그러움 프루티 오라엔탈 플로럴 향과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3가지 파스텔컬러의 사피아노 가방에서 영감을 받은 보틀 디자인이 돋보인다.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43-1805

리프래리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 라프

라는 피부를 영롱한 광채로 채워주는 화이트 캐비아 크림 엑스트라오디네어를 출시한다. 수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발견한 가장 강력한 단일 알루미네이팅 분자, 루이도스가 착각하거나 색소가 침착된 부위에 집중 작용해 결정 없는 광채 피부로 가꿔준다. 문의 080-511-6626

샤넬 루주 코코 립 블러쉬 샤넬은 립과 차크 메이 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루주 코코 립 블러쉬'를 선보인다. 가볍게 밀착되는 에어리 매트 텍스처와 천연 성분을 담은 촉촉한 포뮬라가 특징.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면, 루주 코코 립 블러쉬를 눈여겨볼 것. 문의 080-332-2700



BEAUTY



리프래리

구찌 2018 무슬림 뉴-이어 컬렉션 구찌는 황금 개띠 해를 기념해 특별한 뉴-이어 컬렉션을 출시했다. 디펜드 알레산드로 미갈레의 보스턴 태어를 모티브로, 의상부터 귀여운 액세서리 라인까지 총 6가지의 아이템으로 출시되었다. 강아지 모티브와 함께 화사한 봄 무드로 꾸민 구찌의 새로운 컬렉션에 주목해 보자. 문의 1577-1921

가날리 2018 S/S 컬렉션 가날리는 2018 S/S 시즌 대표 아이템으로 코튼 크루 넥스웨터와 플랫 프론트 팬츠를 제안한다. 다이아몬드 모티브의 코튼 크루 넥 스웨터는 2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으며, 라이트 그레이 플랫 프론트 팬츠는 100% 울 소재인 Impeccabile 2.0 소재로 이루어져 실용성과 우수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문의 02-3467-8603

마이클코어스 블레이블리 버킷 백 마이클코어스는 트렌디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블레이블리 버킷 백'을 공개했다. 견고한 가죽으로 제작했으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57가지 컬러와 모던한 디자인으로 선보여 데일리 백으로 활용하기 제격이다. 문의 02-546-6090

버버리 벨트 백 버버리는 새로운 아이코닉 백으로 '벨트 백'을 선보인다. 버버리 트렌드코어에서 영감



보스 우먼

을 받아 코튼 캐비어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떠오르게 하는 형태와 벨트 장식이 특징. 송아지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2가지 사이즈로 출시했다. 문의 080-700-8800

아이그너 칼리 백 아이그너는 2018 S/S 시즌 모티브인 'AIGNER LOVE'와 관련 단어를 타이포그래피한 칼리 백을 선보였다. 반으로 접히는 독특한 실루엣과 아방가르드한 셰이프가 돋보이는 아이템으로, 탈착 가능한 어깨 끈이 내장되어 있어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며, 넉넉한 수납공간과 실용성을 갖추었다. 문의 02-546-7764

펜디 몽트레조 펜디는 S/S 시즌을 맞이하며 미니 버킷 백 스타일의 몽트레조를 공개했다. 보물창고는 프랑스에서 이름을 따온 이 백은 소담을 휴대할 수 있는 이만한 복주머니 디자인이 돋보인다. 록에 포인트를 더해 실용한 컬러와 고급스러운 2가지 가죽 소재로 선보이는 몽트레조 백으로 사랑스러운 스프링 룩을 연출해 보자. 문의 02-2066-9023

프라다 샬라린 팝업 오프닝 프라다는 지난 2월 28일, 한남대역점 판교점에서 특별한 여행을 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샬라린 팝업 오프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상상 속 열차를 재구성한 독특한 매장 분위기와 함께 아이코닉한 아이템을 만날 수 있었다. 문의 031-5170-1137

보스 우먼 오피스 룩 보스 우먼은 여름날의 여유를 테마로 세련되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컬렉션을 공개했다. 특히 블루 포인트의 스카프를 매치해 데일리룩 착용하기 좋은 니트 블라우스와 활동성이 좋은 와이드 팬츠는 다가오는 봄과 잘 어울리는 오피스 룩으로 추천한다. 문의 02-515-4088



리처드 밀

몽블랑

스와로브스키 리치 롱 컬렉션 스와로브스키는 다가오는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리치 롱 컬렉션을 선보인다. 연인을 연결해주는 애뜻한 감정을 매듭으로 형성했으며, 섬세하게 수놓은 크리스탈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트렌디한 드롭 아이라인과 니크리스, 2가지 스타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108

리처드 밀 RM 53-01 리처드 밀은 폴로 선수 파블로 맥도너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폴로 경기에 최적화된 'RM 53-01'을 선보였다. 선명한 블루 컬러 포인트의 스포티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최초로 카본 TPTP 케이스에 라미네이트 사파이어 글라스를 탑재해 투명한 유리를 통해 드러나는 서스펜션 구조의 투르비용 칼리버가 눈에 띄는 모델이다. 문의 02-512-1311

몽블랑 보헬 데이트 오토매틱 몽블랑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보헬 데이트 오토매틱'을 제안한다. 여성에게 알맞은 28mm 사이즈의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우아한 거트세 페의 디자인에 입수 모양 핸즈, 감각적인 곡선의 아이라인과 스자가 조화를 이룬다. 약자가족과 스틸 브레이슬릿 제품으로 출시되어 우아한 품격을 살렸다. 문의 1670-4810



프라다

가날리

구찌

펜디



JEWEL & WATCH

FASHION